

대해서는 출신 지역을 떠나 전체 도민이 단합된 모습으로 도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지역발전 촉진과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려는 300만 도민의 결집된 의지를 모아 건의(결의)안을 채택해 청와대와 국회, 중앙부처 및 각 정당 등에 전달해 정책 결정에 상당 부분 반영케 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또한, 127일간의 정례회와 임시회를 통해 조례·규칙안 102건, 예·결산안 8건, 건의·결의안 49건, 동의·승인안 등 9건, 총 168건의 도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안건을 처리했으며, 92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장악한 이후 고려 예종 1년(1106년)에 경상 진주도로, 충숙왕 1년(1314년)에는 최초로 경상도로 불렸다.

이후 조선 고종 33년(1896년)에 전국을 13개 도로 나눌 때 처음으로 경상도에서 경상남도로 분리됐고 도청 소재지를 진주에 뒀다가 1925년 4월 1일 부산으로 이전했다. 1963년 1월 1일 당시 부산시가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분리됐고 1983년 7월 1일 도청을 부산광역시에서 현재의 창원시로 옮겼으며 1997년 7월 15일 당시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경남도에서 분리됐다.

이후 2015년 12월 17일에는 일제강점기 경남도청이 진주에서 부산으로 강제 이전된 지 90년 만에 진주시에 다시 경남도청 서부청사가 개청되어 본격적인 서부대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면적·인구·행정구역 총면적은 1만538km²(전국의 10.5%)이다. 섬이 많은 도로써 거제와 남해를 비롯한 400여 개 섬이 전체 면적의 8.5%를 차지한다.

2015년 말 도내 인구는 344만6천460명(내국인 336만4천702명, 외국인 8만1천758명)이며, 행정구역은 8시 10군 315읍·면·동이 있다.



경상남도



경남의아 경이

道花 : 장미 **道鳥** : 백로

道木 : 느티나무 **캐릭터** : 경남의아 경이

도청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도지사 : 홍준표(洪準杓)

개 관

연 혁 삼한시대에 북부에는 진한, 남부에는 변한이 자리했으며, 서기 42년 김해의 금관가야가 경남 전역에서 지배권을

재 정

2016년도 당초 총예산은 7조2천963억원으로 일반회계가 6조2천82억원이며 특별회계가 1조881억원이다.

세입내역은 지방세 2조2천494억원, 세외수입 1천456억원, 지방교부세 4천632억원, 보조금 3조5천204억원, 지방채(지역

경상남도 면적·가구·인구

(2015년 12월 말 현재)

| 구분 | 면적(km ²) | 가구 | 인구(명) | | | 행정리 | | | 통 | 리 | 반 |
|-------|----------------------|-----------|-----------|-----------|--------|-----|-----|-----|-------|-------|--------|
| | | | 계 | 한국인 | 외국인 | 읍 | 면 | 동 | | | |
| 합 계 | 10,538.26 | 1,367,142 | 3,446,460 | 3,364,702 | 81,758 | 21 | 175 | 119 | 3,280 | 4,709 | 33,285 |
| 창 원 시 | 747.27 | 415,872 | 1,086,876 | 1,070,064 | 16,812 | 2 | 6 | 54 | 1,544 | 328 | 10,623 |
| 진 주 시 | 712.96 | 138,231 | 348,838 | 344,426 | 4,412 | 1 | 15 | 16 | 554 | 337 | 4,006 |
| 통 영 시 | 239.54 | 59,015 | 143,705 | 139,168 | 4,537 | 1 | 6 | 8 | 168 | 206 | 1,252 |
| 사 천 시 | 398.58 | 50,520 | 118,633 | 115,452 | 3,181 | 1 | 7 | 6 | 160 | 232 | 1,516 |
| 김 해 시 | 463.36 | 197,865 | 547,268 | 528,865 | 18,403 | 1 | 6 | 12 | 487 | 250 | 3,330 |
| 밀 양 시 | 798.59 | 49,197 | 109,927 | 107,896 | 2,031 | 2 | 9 | 5 | 64 | 265 | 1,085 |
| 거 제 시 | 402.16 | 101,534 | 270,648 | 255,828 | 14,820 | 0 | 9 | 10 | 171 | 201 | 1,739 |
| 양 산 시 | 485.44 | 117,649 | 306,949 | 301,291 | 5,658 | 1 | 4 | 8 | 132 | 128 | 3,116 |
| 의 령 군 | 482.89 | 14,427 | 29,345 | 28,544 | 801 | 1 | 12 | - | - | 238 | 580 |
| 함 안 군 | 416.87 | 30,882 | 72,860 | 69,156 | 3,704 | 2 | 8 | - | - | 251 | 892 |
| 창 념 군 | 532.87 | 30,378 | 65,865 | 63,817 | 2,048 | 2 | 12 | - | - | 285 | 775 |
| 고 성 군 | 517.68 | 25,883 | 57,104 | 55,284 | 1,820 | 1 | 13 | - | - | 263 | 622 |
| 남 해 군 | 357.54 | 22,236 | 46,710 | 45,865 | 845 | 1 | 9 | - | - | 221 | 634 |
| 하 동 군 | 675.52 | 23,603 | 50,860 | 50,259 | 601 | 1 | 12 | - | - | 319 | 520 |
| 산 청 군 | 794.83 | 18,083 | 36,649 | 36,071 | 578 | 1 | 10 | - | - | 286 | 495 |
| 함 양 군 | 725.46 | 19,363 | 40,822 | 40,339 | 483 | 1 | 10 | - | - | 259 | 534 |
| 거 창 군 | 803.17 | 27,895 | 63,705 | 63,232 | 473 | 1 | 11 | - | - | 267 | 719 |
| 합 천 군 | 983.53 | 24,509 | 49,696 | 49,145 | 551 | 1 | 16 | - | - | 373 | 847 |

개발기금매출증권) 1천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8천77억원이다.

분야별 세출내역은 일반공공행정 1조4천779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1천526억원, 교육 4천957억원, 문화 및 관광 1천893억원, 환경보호 3천672억원, 사회복지 2조5천319억원, 보건 1천62억원, 농림해양수산 7천823억원, 산업·중소기업 1천504억원, 수송 및 교통 2천769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3천182억원, 과학기술 45억원, 기타 4천431억원 등이다. 도민 1인당 도세 부담액은 66만8천원이며, 재정자립도는 33.76%이다.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항 목 | 예산액 | | |
|-------------|-----------|-----------|-----------|
| | 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 합 계 | 7,296,338 | 6,208,197 | 1,088,141 |
| 지방세 | 2,249,433 | 2,249,433 | - |
| 보통세 | 1,791,073 | 1,791,073 | - |
| 취득세 | 1,073,000 | 1,073,000 | - |
| 등록면허세 | 106,205 | 106,205 | - |
| 레저세 | 96,686 | 96,686 | - |
| 지방소비세 | 515,182 | 515,182 | - |
| 목적세 | 446,455 | 446,455 | - |
| 지역자원시설세 | 59,605 | 59,605 | - |
| 지방교육세 | 386,850 | 386,850 | - |
| 2014년도 수입 | 11,905 | 11,905 | - |
| 세외수입 | 145,609 | 102,763 | 42,846 |
| 경상적 세외수입 | 40,283 | 32,858 | 7,425 |
| 임시적 세외수입 | 105,326 | 69,905 | 35,421 |
| 지방 교부세 | 463,196 | 463,196 | - |
| 보조금 | 3,520,401 | 3,141,373 | 379,028 |
| 지방채 | 100,000 | - | 100,000 |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 817,699 | 251,432 | 566,267 |

2016년도 경상남도 세출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야 | 예산액 | | |
|-----------|-----------|-----------|-----------|
| | 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 합 계 | 7,296,338 | 6,208,197 | 1,088,141 |
| 일반공공행정 | 1,477,891 | 886,893 | 590,998 |
| 공공질서 및 안전 | 152,611 | 152,611 | - |
| 교육 | 495,685 | 495,685 | - |
| 문화 및 관광 | 189,335 | 189,335 | - |
| 환경보호 | 367,256 | 367,256 | - |
| 사회복지 | 2,531,903 | 2,072,179 | 459,724 |
| 보건 | 106,255 | 106,255 | - |
| 농림해양수산 | 782,306 | 782,306 | - |
| 산업·중소기업 | 150,384 | 150,384 | - |
| 수송 및 교통 | 276,874 | 255,482 | 21,392 |
| 국토 및 지역개발 | 318,257 | 302,689 | 15,568 |
| 과학기술 | 4,476 | 4,476 | - |
| 예비비 | 57,929 | 57,929 | - |
| 기타 | 385,176 | 384,717 | 459 |

중점 추진사업

공보분야 대표 종합홍보지인 '경남공감'의 콘텐츠 강화와 구독환경 개선으로 고품격 홍보지로 자리매김했고, 도정종합정보홍보시스템을 통해 도내 18개 시·군·구에 도정뉴스와 주요 시책 영상물을 방영함으로써 도민의 도정 이해도를 증진시켜 도정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인터넷방송, 인터넷신문, 블로그, 트위터 등 온라인 홍보와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국내 온라인 소통분야 5개 대회에서 7관왕을 했다.

기획·조정분야 3개 국가산단 조성, 창원국가산단 구조고도화, 항노화 산업, 진해 글로벌테마파크 복합리조트 조성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미래산업본부'를 신설하고 경남미래 50년 사업의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경남미래 50년에 대한 도민공감대 확산을 위해 홍보 동영상 제작 및 전략적 홍보(TV, KTX, 전광판 등)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또한, 2015년 12월 17일 역사적인 서부청사를 개청에 맞춰 전략적인 조직개편을 단행, 본격적인 서부권 대개발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무엇보다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다양한 세입확충 노력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채무 상환에 최우선으로 활용해 2013년 초 1조3천488억원이던 채무가 2015년 말에는 957억원으로, 3년간 1조2천531억원의 채무를 상환했으며, 2016년 상반기까지 남은 채무 957억원도 모두 상환할 계획이다.

기업·고용분야 2015년 일자리종합대책을 수립해 117개 사업 8만5천 개 일자리 창출에 도정 역량을 집중했다. '경남형 기업트랙'을 통해, 도와 95개 우량기업 및 도내 20개 전 대학이 지방대학생 1천2명에 대한 채용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매년 1천2명이 졸업과 동시에 취업할 수 있는 안정적인 취업기반을 구축했다.

또한, 경상남도 일자리종합센터 운영과 도·시·군 합동 권역별 채용박람회(3회)와 대학생 취업멘토링 콘서트를 개최해 1만263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했다.

경제·통상분야 2014년 3월 12일 창원국가산단이 혁신산단에 선정됨에 따라, 2023년까지 국비, 도비, 시비, 민자사업비 등 총 21개 사업에 8천529억원을 투입해 창원산단을 미래 50년을 이끌어갈 ICT 융·복합 스마트 혁신 산업단지로 재창조할 계획이다.

10월에는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의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주관기관인 경남테크노파크 간 협약체결을 실시해 본격적인 추진을 시작했다.

서부권개발분야 항노화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경남미래 50년의 핵심 6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2022년까지 33개 사업에 5천579억원을 투입해 서부북지역에 체류형 휴양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김해·양산 등 동부경남지역엔 의생명 관련 양방 항노화 추진, 해안과 연접한 남해안 특성을 살려 천연물 소재 해양항노화 산업 육성, '핵심 IP 산업화 플랫폼' 개발과 '바이오 항노화 의과학 연구센터(BAMRC)' 구축 등 고부가가치 항노화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초전신도심 개발은 서부권개발의 거점 중심축을 만들기 위한 진주부흥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주시 초전동 일원 41만5

천㎡ 부지를 신도심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기간은 2014부터 2026년까지 약 12년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진주 50만 인구기반을 위한 자족기능 마련과 서부경남 중심축으로서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 및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해양·수산분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협중앙회, 한국수산무역협회 등 6개 기관과 수출업무 협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또한, 하동 '왕의 녹차 참승어'와 우럭, 강도다리 등 활어를 미국 동부지역인 뉴욕에 첫 수출하는 성과를 올렸고 LA농수산엑스포에서 대미 수산물 수출계약 1억3천만 달러를 달성했다.

신소득 품종 해삼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2014년에 이어 4개 해역에 대한 해삼 씨뿌림사업 적지조사와 1개 해역에서는 효과조사 사업을 시행하고, 해삼 씨뿌림사업 협약서를 43개 해역 어촌계와 체결해, 2015년도 사업비 50억원을 투입, 해삼종묘 1천255만4천 마리를 방류했다.

환경·산림분야 상수도시설 확충 9개 분야 726억원, 노후 수도관 개량 170.1km 282억원 투자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도를 공급했다. 조림 및 숲 가꾸기 조림 2만240ha 402억원, 산림 휴양·치유 기반시설 확충 22개소 249억원, 산림경영 선진화를 위한 임도시설 확충 364km 141억원 등을 통해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 확충했다. 특히, 소나무재선충병 재발병률을 2014년 97%에서 47%로 대폭 줄였다.

도시·교통분야 양산일반산업단지가 선정되어 2027년까지 총 1천509억원(국비 453, 지방비 452, 민자 604)을 투입해 새로운 산업단지로 재탄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정부 역점사업'인 도시재생사업인 창원시(舊마산) 도시재생 선도사업에 40억5천만원(국비 15억원, 도비 4억5천만원, 시비 21억원)을 투입해 부림 도심공원 및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설계 및 보상을 완료했다.

안전건설분야 특정관리대상시설 6천376개소, 시특법 대상 시설 3천350개소, 수상안전시설 42개소, 어린이놀이시설 3천470개소, 승강기 시설 3만660개소 및 승강기 제조·유지관리업 42개 업체에 대해 연중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2015년 국가 안전대전단(6만3천783개 시설점검(점검률 100%), 현지지정·보수보강 등 2천799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수해상습피해지역 개선사업에 91억원을 들여 15km를 정비했고, 소하천 정비사업 48개 지구를 선정해 522억원을 투입, 소하천 19km를 정비하는 성과를 거뒀다.

창원-부산 간 도로 민간투자사업 3단계는 2015년 12월 4일 개통됨으로써 전구간이 개통됐다. 이에 따라 차량의 교통정체 해소뿐만 아니라 부산으로 향하는 교통이 분산되어 교통 혼잡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

문화·관광분야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밀양·김해·의령 문화예술회관에 161억원, 진주·창녕문화원에 32억원, 창원·김해·거제·양산도서관에 29억원, 통영·합천 작은 도서관에 2억원을 투입했다. 총 사업비 96억원을 투입해 도 대표도서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외래관광객에게 언어권별 SNS 채널, 모바일 홈페이지 운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 관광정보를 실시간 제공했다. 또한, 2016년 정부지정 문화관광축제에 함양 산삼축제가 신규로 선정되면서 서부경남 향노화산업의 전망을 밝게 했으며 한국판

광공사 경남지사 설립은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보건분야 예산 중 30.3%인 2조6천71억원을 사회복지·보건분야에 편성해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 데 힘썼다.

경제·산업

경제지표 2015년도 경남도 수출은 2014년 대비 8.1% 감소한 470억 달러, 수입은 21.6% 감소한 210억 달러로 260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경남지역 실업률은 2.6%로서 전국 실업률 3.6%보다 1%p 낮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6%로서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0.7%보다 0.1%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2015년 기준 경남지역의 제조업체(10인 이상)는 조립금속·기계, 섬유·의복, 신발·피혁, 석유화학제품, 목재·가구, 전기·전자, 자동차·운송장비, 음식료품, 종이·인쇄, 1차 금속 등의 업종에 7천419개 업체가 있고, 종업원 수는 35만2천219명, 출하액은 142조3천906억원, 부가가치는 47조8천681억원이다. 종업원 300명 미만의 중소제조업체가 7천335개로 전체 제조업의 98.9%를 차지하고 있다.

농업 농업은 농가 13만5천100가구에 농업인구는 31만 명이다. 경지면적은 논 9만3천800ha, 밭 6만200ha 등 모두 15만4천ha이다. 미곡생산량은 7만6천200ha에서 37만6천, 맥류 5천800ha에 2만4천900t을 생산했다.

수산업 경남의 어항시설은 국가어항 19개소, 지방어항 61개소, 어촌정주어항 342개소, 마을공동어항 145개소 등 총 567개소이다. 어선은 1만4천655척(전국의 21.4%), 양식어장은 2천235건 1만1천670ha, 2014년도 기준 수산물 생산량은 58만1천(전국의 17.6%)이며, 2013년 말 현재 도내 수산물가공업 등록·신고업체 479개소 중 냉동냉장업은 178개소이며 생산능력은 15만이다.

임업 임야면적은 총 70만6천990ha로 국유림 7만662ha, 공유림 4만8천240ha, 사유림 58만8천88ha이다. 임목지별로 침엽수가 32만500ha, 활엽수 13만6천838ha, 혼효림 23만3천144ha, 죽림 1천996ha, 무임목지가 1만4천512ha이다.

축산업 가축은 한·육우 1만1천962농가에 25만5천 두, 젖소 288농가에 2만5천 두, 돼지 601농가에 11만8천 두, 닭은 175농가에 994만7천 수를 사육하고 있다.

사회

주택 총 133만7천650호로 이 가운데 단독주택 36만3천640호, 다가구주택 29만6천985호, 아파트 62만1천282호, 연립주택 2만7천900호, 다세대 주택 2만7천843호이며 주택보급률은 107.5%이다.

도로·교통 도로는 고속국도가 9개 노선에 498km, 일반국도 17개 노선에 1천557km, 국가지원지방도는 7개 노선에 414km, 지방도는 40개 노선에 2천km, 시·군도는 1만5천445개 노선에

7천773km이며 전체 1만2천241km 중 9천671km가 포장되어 포장률은 89.8%이다.

차량 수는 승용차 12만5천445대, 승합차 6만1천743대, 화물차 28만535대, 특수차 6천469대로 모두 156만4천92대이며 이중 영업용은 7만5천174대, 비영업용은 148만9천18대이다.

보건·위생 종합병원은 24개소 8천921병상, 병원은 141개소 2만3천37병상, 치과병원 17개소 30병상, 한방병원 5개소 329병상, 요양병원 106개소 2만265병상이 있다. 이밖에 의원(부속 의원 포함) 1천522, 치과의원 822, 한의원 762, 조산원 1, 의약품 등 판매업소 5천797, 보건소 20, 보건지소 174, 보건진료소 221개소가 있다.

또한, 의사 등 의료인 1만6천647명, 약사 1천478명, 의료기사·간호조사무사 등 의료인력 1만3천37명이 종사하고 있다. 위생업소는 공중위생업 9개 업종 1만5천903개소, 식품위생업소 15개 업종 8만1천253개소를 관리하고 있다.

사회·복지 아동보호시설 53개소 1천142명, 장애인거주시설 32개소 1천586명, 노숙인시설 4개소 348명, 한부모가족복지시설 6개소 220명, 정신요양시설 4개소 718명,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원 등) 232개소 8천524명이 각각 생활하고 있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 31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경로당 7천18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노인복지관 19개소에 일 평균 1만964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관 17개소에도 일 평균 2천660명이 이용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7만5천334가구 10만7천148명이며, 한센병 환자는 1천174명으로 26개소의 정착촌에 774명, 재가환자 281명, 생활시설 1개소에 119명이 생활하고 있다.

문화·관광

문화시설 공공도서관 66개소, 영화상영관 24개소 144관, 문화원은 21개소, 박물관 57개소, 미술관 9개소, 향교는 27개소, 도 및 시·군 문화예술회관은 20개소이다.

문화재 국보 10점, 보물 161점, 사적 51점, 명승 12점, 천연기념물 45점, 중요무형문화재 19점, 중요민속문화재 12점, 등록문화재 42점, 경남도 민속문화재 21점, 유형문화재 522점, 기념물 250점, 무형문화재 32점, 문화재 자료 595점 등 모두 1천772점이다.

관광시설 지정관광지 23개소, 관광단지 1개소, 관광특구 2개소(창녕 부곡온천, 통영 미륵도), 관광사업체 1천318개, 관광안내소 50개소(도 9개소, 시·군 41개소)이다.

관광 지리산 국립공원, 가야산 국립공원, 덕유산 국립공원, 한려해상 국립공원 등 4개 국립공원과 가지산 도립공원과 연화산 도립공원 등 2개 도립공원이 있다.

또한 부곡·마금산·가조온천 등과 해인사, 통도사, 쌍계사 등 유명사찰이 자리해 있다. 주요 관광지로는 남해 가천 다랭이마을, 진해 경화역 및 여좌천 벚꽃길, 창녕 우포늪, 합천 해인사, 지리산 천왕봉, 함양 다락논, 산청 황매산 철쭉, 진주 축석루 등이 유명하다. 남해안 한려수도의 바다와 섬을 연계한 생태 체험 관광이 대표적이며, 조선, 항공 등 주요 산업 관광자원도 함께 보유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대표 관광지 100선'에 경남지역 관광명소 11개소가 선정됐으며, 특히 창녕 우포늪이 네티즌 추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문화·예술행사 진해 군항제, 사천 와룡문화제, 김해 가야문화축제, 함안 아라제, 하동 화개장터 벚꽃축제(4월), 산청 한방약초축제, 하동 야생차문화축제, 밀양 아리랑대추제, 거제 세계조선해양축제, 진주 논개제, 남해 보물섬마을축제, 의령 의병의날 기념행사(5월), 거제 옥포대첩 기념제전행사(6월), 함양 산삼축제, 거창 국제연극제, 합천 황강레포츠클럽제(7월), 통영 한산대첩(8월), 함양 물레방아골축제 (9월), 진주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 진주 남강유등축제, 창원 만날제, 진주개천예술제, 양산 삼량문화축전, 산청 지리산평화제, 합천 대야문화제, 창녕 비사벌 문화예술제, 창원페스티벌, 창원 가고파국화축제, 하동 토지문학제(10월), 거제 섬꽃축제(11월), 도민예술단 시·군 순회공연(연중), 통영 국제음악제(3월), 경남연극제(5월), 밀양 여름공연예술축제(7월), 거창 국제연극제(8월), 창원 국제연극제, 하동 이병주 국제문학제(9월), 진주 이상근 국제음악제(10월), 진주가요제(11월),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11월) 등 각종 문화예술 행사가 매년 정례적으로 열리고 있다.

의회활동

원구성

〈의장〉 김윤근

〈부의장〉 이병희, 조우성

〈정당별 의석〉 새누리당 51, 더불어민주당 2, 정의당 1, 무소속 1명이 있다.

조례 등 248건 처리로 적극적인 도민이사 반영 2015년 한 해 동안 총 150건의 조례안과 각종 건의안 등 24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25명의 도의원이 127건의 도정 질문을 했고, 37명의 도의원이 83건의 5분 자유발언을 해 도민을 대변하는 도정의 감시자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했다.

도민과 소통하는 현정중심의 의정활동 도민과 소통하는 현정중심의 의정활동을 실현하기 위해 의장단은 연초부터 경남 미래 50년 핵심사업인 신규 국가산단 조성 예정지와 하동군 화개장터, 전통불교문화예술관 건립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

활발한 의원 입법활동 및 행정사무감사로 집행부 견제 2015년 한 해 동안 52건의 의원발의 조례를 제·개정 했으며 의미있는 조례로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제정과 생활안정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조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양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가 제정됐고,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는 전국 광역의회 중 처음으로 제정됐다.

그리고 대규모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해 '도의회 의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의회의 집행부 견제기능을 강화한 '민간투자

사업에 관한 조례'도 제정해 MRG 부담 등 과도한 재정부담을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임위원회별 활동

• **운영위원회** 정례·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 201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8개 의원연구단체 2015년도 활동계획 심의,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운영과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의회 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에 대해 처리해 의원들이 의정 활동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 **기획행정위원회** 도내 서민자녀들이 다양한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소속의원 발의로 제정해 '계층 이동 가능성을 높이는 새로운 복지모델'을 제시했다. 또한, 지역사회 발전 촉진을 위한 '경상남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등 조례안 43건, 예산안 및 결산 예비심사 4건, 계획안 3건, 결의안 1건,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결과보고서 1건 등 총 54건의 각종 의안을 처리했다.

• **교육위원회** 6월과 12월에 수곡초등학교 원계분교장 등 폐지학교 4개교와 통영초등학교 등 2개교 미활용 구외부지 매각 관련 현장방문을 실시해 매각의 당위성과 매각 재원의 활용계획 등을 청취하고, 매각대상 재산의 입지적 조건과 주변 환경을 현장에서 확인했다. '경상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 '경상남도교육청 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25건의 조례안을 심의했다.

• **농해양수산위원회**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의했으며, 경남 어업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예산안 및 결산 예비심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채택 등 총 15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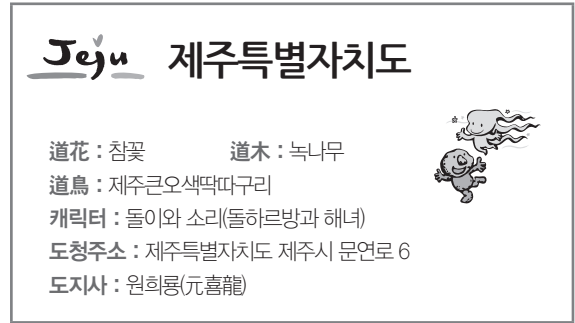
• **경제환경위원회** 2015년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9건, 건의안 5건, 결의안 2건, 동의안 4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채택 각 1건 등 총 31건의 각종 의안을 처리했다.

• **건설소방위원회**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16건, 동의안 1건,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안, 2015년 1·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등 모두 22건의 각종 의안을 심사·의결했다. 특히,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했으며, '경상남도 빈집 정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 **문화복지위원회** '경상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3건과 건의안 등 모두 36건의 의안을 심사·의결했다. 또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2014년도 결산안, 2015년도 제1회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 **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경남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도청소관 예산·결산 종합심사 총 4건, 교육청소관 총 6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했다. 2015년 3월 '지방자치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안철우 위원장)를 구성해 1년간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타시·도의회와 업무협약 체결 등 활발히 활동 중이다. 또한, 7월 '경상남도 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박춘식 위원장)를 구성해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업무 전반 및 재정운용 실태를 파악해 학교급식의 합리적 방안을 강구하고자 6개월간 조사한 결과, 학교급식 전반에서 문제점이 도출됐으며 위법 및 의혹사안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및 고발, 시정 처리를 요구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개 관

언 령 제주특별자치도는 상고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는 탐라(耽羅) 또는 탁라(毛羅)국으로 불렸다. 탐라라는 국호는 1105년(고려 숙종 10년) 탐라군이 설치되면서 폐지됐다. 제주(濟州)라는 명칭은 고려 고종 연대(1192~1259년)에 탐라군을 개칭하면서 처음 사용됐다. 조선시대인 1397년 제주목(牧)이 설치됐다. 일제 강점기인 1915년 5월 제주·정의·대정 3개 군제(郡制)가 폐지되고 도제(島制)로 개편하면서 행정권과 경찰권을 행사하는 도사(島司)를 뒀다. 도사는 전남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행정사무를 수행했다. 도제는 해방 이후 미 군정 때도 계속됐다. 해방 후인 1946년 8월 1일 전라남도 행정구역에서 분리, 도(道)로 승격되면서 북제주군과 남제주군 등 2군·읍·면이 설치됐다.

제주시는 1955년 9월 1일, 서귀포시는 1981년 7월 1일 각각 읍에서 시로 승격됐다. 2006년 7월 1일 단일 광역행정체제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인 제주시와 서귀포시,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이 폐지되고 자치권이 없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2행정시, 7읍, 5면, 31동으로 개편됐다.

면 적 2015년 말 기준 총면적은 1천849km²로, 남한 전체 면적의 1.85%를 차지한다. 용도별 점유율은 경지 29.2%, 임야 47.5%, 대지 3.2%, 도로 4.5%, 기타 15.6% 등이다. 부속 섬은 유인도 8개, 무인도 71개 등 모두 79개다. 해안선 길이는 본섬 415.56km, 부속 섬 133.24km 등 총 548.8km이다. 자연 해안선은 356.21km(본섬 250.74km), 인공 해안선은 192.59km(본섬 164.82km)이다.

인 구 2015년 말 기준 25만6천928가구에 64만1천355명(외국인 1만6천960명 포함)이다. 제주시는 18만5천874가구에 47만788명, 서귀포시는 7만1천54가구에 17만577명이다. 전체